

하나님의 군대 정비

제1과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6-7페이지에 나오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의 시작과 끝에 있었던 두 번의 인구조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전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

오늘의 말씀 : 민수기 1:1~4, 47~54; 26:1~4, 51~56, 63~65

찬송 : 349장(통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기도 : 정해진 담당순서에 따라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Kingdom
Life



배경설명 :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감행한 후(출 12:37) 약 50일 동안 걸어 시내산 아래 광야에 도착했으며(출 19:1), 그곳에서 약 11개월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받는다. 시내 광야에서 규례대로 성막을 세운 지(출 40:17) 약 한 달이 지난 날인 출애굽 제 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는 첫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신다(민 1:1-4). 가나안으로 행진하여 들어가기 위한 준비였다.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 끝 신 광야 초입의 오아시스 가데스바네아까지 이동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명의 정탐을 가나안 땅에 보내 40일간 탐지하게 한다(12:16). 여기서 다수 정탐들의 부정적 보고에 흔들린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약 37년 6개월을 바란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고, 그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소멸한다. 이제 다음 세대가 주축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한다(26:3-4).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의 준비였다.

도움말 :

-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1:1): 민수기에 나타나는 일자는 모두 출애굽을 기준으로 한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 유대력으로 첫째 달 15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출애굽에서부터 1년 15일이 경과된 때였다.
-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1:46):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의 숫자이기 때문에 부녀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200~250만 정도의 인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 열병(26:1): 싯딤에서 바알브올 송배에 빠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심판(25:1-9).
- 모압 평지(26:3): 요단 강 동편에 있는 모압 지역의 평원.
- 엘르아살(26:3): 아론의 셋째 아들이다. 그의 부친 아론의 사후 모세와 여호수아 두 대에 걸쳐 제사장으로 섬겼다.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본문을 다시 읽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면서 경청합시다.



말씀 깨닫기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인구 조사를 언제 어디에서 명하셨습니까?(1:1-4)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출애굽 제 2년 2월 1일), 즉 출애굽한 지 1년 15일이 지난 날에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시행하라고 명하셨다. 참고로, 이 날은 성막이 건립된 출애굽 제 2년 1월 1일(출 40:17)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였다.

▶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3, 45절 참조).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1년 15일이 지난 날이며, 시내산에 도착한 지 약 11개월이 지난 날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땅 거민들(창 15:16 참조)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싸움에 나갈만한 이십 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여 군대를 정비하게 하셨다.

▶ 이 인구조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궁극적으로 ‘사명 공동체’(missional community)이다. 예수님은 어둠으로 가득찬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천국)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실증해 보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그의 몸인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셨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 사이의 친교에 머무는 ‘유람선’이 아니라, 수행할 사명을 품고 항해하는 ‘항공모함’이다. 교회는 점점 어두워져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잘 정비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라고 권면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딤후 2:3-4).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탄과 그의 즐거움을 분명히 밝혀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었다(엡 6:11-18 참조).

2.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의 계수(計數)에서 어느 지파를 제외시키라고 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1:47-54)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12 지파는 기본적으로 야곱의 열 두 아들의 이름과 수를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애굽에서 민족의 성장 과정과 출애굽을 거치면서 요셉 족속의 인구가 다른 형제들의 자손의 수를 압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별도의 지파로 구별되었다. 이에 따르면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13 지파라 할 수 있었지만 12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보전하면서 통칭 ‘열 두 지파’의 개념이 존속되었다. 특히, 가나안에 들어가 실제로 땅을 나눠 받을 때의 구획이 12개로 확정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지파로 굳어졌고, 반면 하나의 통합된 구획으로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다른 열 두 지파 속에 흩어져 살게 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레위 지파’라는 호칭보다 ‘레위인’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게 된 것 같다. 이후 ‘지파’는 그에 속한 땅과 결부되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도 49절에 한 번 ‘레위 지파’라는 말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레위인’으로 지칭되었다(47, 51, 53절).

▶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 인구조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50-53절)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오직 성막에 대한 책임만을 맡기시기 위해,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을 전담시키기 위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는 인구조사에서 그들을 제외시키게 하셨다. 특별한 지파 하나에게 예배와 관련된 일을 전담시킬 만큼 여호와 예배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하고 필수적인 것이었다. 참고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만의 공동체 울타리와 삶의 터전이 되는 영토를 분배 받지 못했다. 그들이 땅을 경작하여 얻는 소득에 신경을 쓰다 보면 성막을 돌보며 예배를 돕는 일에 소홀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중요한 여호와 신앙의 체제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 지파가 거주할 48개의 성읍은 다른 지파들의 기업 속에 흩어져 있었다(민 35:1-8). 그 결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업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민 18:20, 신 10:9, 수 13:33). 다른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일조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므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민 18:24).

▶ 오늘날의 교회에서 레위인의 개념으로 살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전임사역자들이다. 신약 시대의 전임사역자들을 구약 성전 제도 아래에서의 레위 지파와 완전히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교회 밖의 세상에서 직장을 갖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의 일에 집중하도록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구약의 레위인 제도의 정신을 반영한 현대 교회의 시스템으로서의 ‘전임 사역자’ 제도는 오랜 교회사 속에서 그 기능과 필요성 차원에서 검증된 방법이다. 미국장로교에서는 상당 기간의 신학 훈련을 받고 교회의 안수를 받아 부름 받은 목사를 ‘말씀과 성례의 사역자(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라고 불러 이 레위 지파 제도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 이런 전임사역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교회의 일에 전념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고 살펴줘야 한다.

3.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한지 약 38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하셨습니까?(26:1-4)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고(1:1, 19 참조),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시행하였다. 인구 조사의 목적은 첫 번째 경우와 같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의 정비를 위함이었다(26:2).

▶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결과 이십 세 이상으로서 전쟁에 나갈만한 자의 합은 몇 명이었으며(26:51 참조), 거기에는 첫 번째 인구조사 때에 계수된 사람들 중 몇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26:64)

두 번째 인구조사의 합은 601,730명이었고(1차 때에는 603,550명이었음), 여기에는 1차 인구조사 때에 계수된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말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인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는 첫 번째 인구조사 때 20세 미만이었거나, 이후 광야에서 태어나 20년이 지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 대상자들은 완전히 바뀐 새 세대의 사람들이었다.

▶ 이스라엘의 세대교체를 가져온 약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요?(신 8:2-6 참조)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의 긴 광야생활의 의미가 신명기 8:2-6에 잘 담겨 있다. 약 38년 동안 지속된 이스라엘의 광야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사는 존재들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훈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채찍(징계)과 당근(만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심, 발이 부르뜨지 않게 해주심)을 함께 사용하셨다.

▶ **이스라엘이 1차 인구조사 후 2차 인구조사에 이를 때까지 경험했던 광야 생활은 현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니까?**

스테반은 그의 순교 설교에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지칭했다(행 7:38).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새로운 군대로 빚어져 갔던 모든 과정은 교회 공동체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양으로 빚어져 가는 여정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거처간 순종과 불순종의 모든 사건들을 교사 또는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4.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하신 또 다른 목적은 무엇입니까?(26:53-54)**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을 지파별로 나누기 위한 기초 작업을 위함이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기업이,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기업이 주어질 것이다.

▶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2세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족속들과 전쟁을 하여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신 것이다. 이것은 광야 2세대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었을 것이다.

▶ **당신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혹은 어떤 실체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사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지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 따라 살기

*인도자는 참가자용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1. 당신이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 받았던 이스라엘 광야¹ 세대는 가나안 땅의 철병거와 거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절당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확고한 정체성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기 시작할 것이다.

2.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잘 정비되는 일에 우리 소그룹이 기여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나누어 보고 실천해 봅시다.

군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하다. 혼자 잘 준비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군대는 팀플레이다. 서로를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지 못하거나, 참석하지만 공동체와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교회 사역에 관심이 없거나,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우리 소그룹이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예: 우리 소그룹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화나, 문자 메시지나, 작은 선물과 같은 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명하기, 우리 소그룹 모임에 초대하기, 중보하기 등).